심혈관 나이 알면 건강이 보인다

광주시·질병관리본부 예방관리주간

건강부스 운영…무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 생활습관 등 홍보

광주시는 1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매년 9월 첫 주)'을 맞아 5일까지 유스퀘어 내 영풍문고 앞 일원에서 민·관·학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며,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개최한다.

캠페인에는 광주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5개구 보건소,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민·관·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캠페인 현장에는 시민들의 생활실천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알아두세요 zone ▲기억하세요 zone ▲움직이세요 zone 등 3개로 구성된 시민 참여형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알아두세요 zone'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혈관 숫자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무료로 혈압, 혈당, CO측정 등을 해 주고 금연·영양교육을 포함해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기억하세요 zone'에서는 레드써클 건강엽서, 캘리그래피, 즉석사진 찍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된 혈관나이를 기억하기 좋도록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한다.

'움직이세요 zone'에서는 우리동네 건강예체능이라는 '동작 인식게임'을 통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관내 행정게시대(56곳)와 육교(4곳) 현수막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을 홍보하고, 시정 전광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야구장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임형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혈압, 혈당 등 자기혈관에 대한 수치를 바로 알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풍암지구 소태방면 부분 차량 통제

광주시, 방음터널 설치…내년 5월까지

광주시는 1일 "제2순환도로 풍암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2016년 5월까지 풍암지구 주변 소태방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5억원을 들여 풍암지구 제2순환도로 소태방면에 방음 터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통제는 1차로와 3차로를 교대로 실시하며, 차량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장봉관 종합건설본부 토목3과장은 "도로 이용객들은 공사 구간 통행시 안전을 위한 감속운전 및 교통체증이 심각한 출·퇴근 시간에는 송암로 등으로 우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

광주U대회, 그 영광의 순간

사진·영상 콘테스트 대상 김진일씨…시청 시민숲서 전시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뜨거웠던 현장이 담긴 '영광의 순간' 당선작이 발표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광주하계U대회 영광의 순간 사진·영상 콘테스트' 대상 수상작으로 김진일(52·회사원)씨의 '광주하계U대회 개막식'(사진 부문)과 박영진(33·프리랜서)씨의 'Shall we love?'(영상 부문)를 선정했다.

교수와 중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공감도, 작품성, 의미 등을 고려한 상대 평가를 통해 대상(2개), 우수상(5개), 장려상(19개) 등 총 142개 작품을 선정했다.

시는 당초 대상(2개), 우수상(6개), 장려상(20개) 등 총 228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영상 부문 접수 미달 등 콘테스트 공고 기준에 따라 부문별 수상작이 일부 조정됐다.

수상자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9월중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회와 시상식을 통해 시민에 공개된다.

시는 특히 온라인기록관을 구축해 이번 콘테스트 당선작들은 물론, 앞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5광주하계U대회 영광의 순간 사진·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지난 8월3일부터 19일까지 17일 동안 외국인 포함 다양한 지역에서 총 755건의 작품을 접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방 '남부대수영장' 2만2천명 다녀갔다

8월 5일~31일 하루 평균 900명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민에게 개방한 남부대국제수영장에 총 2만2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부대국제수영장을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회에 걸쳐 회당 최대 500명까지 입장하도록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900여명, 총 2만2000여명이 이용했다.

시는 수영장 개방을 위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물을 확보했으며, 개방 기간 동안 의무실 운영 및 풀장 안팎에 안전요원과 119응급차량을 배치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남부대국제수영장은 연면적 1만939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경영풀 10레인, 다이빙풀 등 수영시설을 갖춘 광주 유일의 국제수영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부대수영장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대회, 선수 전지훈련장소 등 수영 메카로 육성하는 한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10곳 '보통'

총 12곳…노인복지재단 등 4곳 A등급·광발연 등 2곳 C등급

광주시 산하 12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10곳이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신용보증재단과 광주발전연구원은 '일부 미흡' 이라는 성적을 냈다.

광주시가 31일 발표한 2015년도 12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A등급 기관은 영어방송·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경제고용진흥원·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이다.

보통 등급인 B등급 기관은 6곳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디자인센터·문화재단·여성재단·국제기후환경센터·그린카진흥원 등이다.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C등급 기관은 광주발전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2곳이다.

최고등급인 S등급과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영어방송은 2년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리스크 관리, 지역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의 미래창조과학부 사업평가 전국 1위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개월 이상 기관장 공석에 따른 경영관리체계 등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신규보증공급 실적 하락 등으로 C등급을 받았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광주시가 선정한 외부전문 경영평가기관(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평가지표로 실시했다.

올해는 출연기관 사업성과 배점을 지난해 40점에서 60점으로 늘렸고, 사업 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 수준 적정성 평가(난이도 평가)도 도입했다. 또 출연기관의 외부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대 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부진기관에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매달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장 전체 회의 등을 실시해 경영평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